

“비열·끔찍”...구호활동가 학대 이스라엘에 국제사회 비난

임시 구금시설 영상 파문...“굴욕적 처우” 항의성 대사 초치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가치·규범에 맞지 않아” 사태 수습 나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이스라엘 당국이 손을 묶은 채 무릎 꿇린 영상이 공개되자 국제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을 나포한 데 이어 탑승 활동가들을 전쟁 포로나 현행범처럼 거칠게 다룬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브리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이날 가자지구 해상 봉쇄를 뚫으려다 억류된 국제 활동가들을 찾아가 조종하는 영상을 공개한 뒤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이스라엘 남부 아스돗 항구의 임시 구금시설 바닥에 손이 뒤로 묶인 채 줄지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댄 국제 활동가 수십 명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일부 장면에서는 벤그브리 장관이 무릎을 꿇

고 있는 활동가들 앞에서 대형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고 말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후 국제사회는 규탄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EU 시민들도 포함된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는 굴욕적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벤그브리 장관의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을 맡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처신”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구금된 모든 사람은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고 국제법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며 “이들 활동가에 대한 처우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호선에 탑승한 민간인들에 대한 끔찍한(abominable) 처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무릎 꿇려진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구호선 활동가들(사진 오른쪽)과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이타마르 벤그브리 국가안보장관 모습.



무릎 꿇려진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구호선 활동가들(사진 오른쪽)과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이타마르 벤그브리 국가안보장관 모습.

그는 “캐나다는 폭력 선동을 반복해온 벤그브리 장관에 대해 이미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도 “중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주뉴질랜드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겠다”고

밝혔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며 “벤그브리 장관의 최근 행동은 지난해 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해준

다”고 말했다.

페니 워 호주 외교장관도 성명을 내고 “벤그브리 장관이 게시한 영상은 충격적이며 용납할 수 없다”며 “그의 행동과 구금된 이들에 대한 이스라엘 당국의 굴욕적인 처우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튀르키예 정부도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거나 항의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네타냐후 이라크 이스라엘 총리는 이례적으로 벤그브리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외교교과 과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호선 활동가들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강제 추방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세계 40여국의 친(親)팔레스타인 활동가 약 430명은 최근 이스라엘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가자지구 구호품을 전달하겠다고 50척 이상의 선박에 나눠 타고 출항했다.

이스라엘 해군은 이 선박들을 모두 나포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 소속 한국 국제 활동가 2명과 한국계 미국인 1명도 억류됐다. /연합뉴스

시진핑·푸틴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해야”

대북 제재·압박 반대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진일보한 전면적 전략 협조 강화와 선린 우호·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체결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양측의 소통과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역내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 모든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또 외교적 고립·경제 제재·무력 압박 등 수단으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을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정치적 수단의 남용을 멈추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 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타스 통신과 신화통신이 공동 주최한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리는 지정학적 현실에 기반해 각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정치·외교적 방식으로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평화 체제 구축,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안정 유지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중러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 뒤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 캘리포니아 산불...주민 약 5만명 대피령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곳곳에서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주민 약 5만명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LA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리버사이드 카운티 주루과 밸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 면적이 1천374에이커(약 556ha)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인근 주민 가운데 3명은 연기를 흡입했고, 한 명은 의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주민 7천200명이 대피했다.

이 지역 강변의 마른 나무에 불길이 옮겨붙었

고, 시속 10마일(16km)의 강풍이 불면서 불길이 커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남부 주니퍼 스프링스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430에이커를 태웠다.

이보다 앞서 18일에는 로스앤젤레스(LA) 북서쪽 시미 밸리에서 화재가 일어나 사흘 만에 1천689에이커 규모로 번졌다.

현장에는 소방관 800명이 투입됐다. 주민 4만 3천명에 대피 명령이, 300명에는 대피 경고가 내려졌다. 인근 학교에는 휴교령이 선포됐다.

이 지역 강변의 마른 나무에 불길이 옮겨붙었 /연합뉴스

이란 “美 새 종전안 검토중”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이란 당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에스마일 바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측의 관점(제안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현재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에 와 있는 것은 양국 간 메시지 교환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IRNA 통신은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 다시 이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바기 대변인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화의 선결과제로 ▲해의 자산 동결 해제 ▲미국측의 해상 봉쇄 중단 등을 제시했다.

바기 대변인은 “만약 이 과정이 이란의 정당한 요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외교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부당한 요구를 고집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